

▶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31일부터 9월 3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서

놀이하는 인간, 문화를 창출하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2017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이하 2017)'를 연다. 축제는 '놀이하는 인간, 문화를 만든다'를 주제로, 총 15개국 31편의 영화를 선보인다.

프로그램은 영화상영·공연·강연·체험·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전 세계의 무형유산과 전통놀이를 접하고 현대적 전승가치를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디스커버리' 부문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9편이 상영되고, 3인으로 구성된 국내외 영화전문가의 심사로 최우수작품상과 우수작품상을 시상한다.

'스페셜' 부문에서는 민족지영화의 거장인 티모시 에쉬 특별전을 마련하고 이기중(전남대 교수)의 강연과 함께 감상한다. 이와 함께 프랑스 영화감독 알랭 레네가 '피카소, 반 고흐, 폴 고갱'의 작품세계와 삶을 담아낸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가족 관람객을 위한 '패밀리' 부문에서는 애니메이션 5편과 극영화 2편이 상영되고, 영화를 바탕으로 만든 놀이 체험 행사를 풀잎문화센터 전주와 평생문화직업전문학교의 참여로 운

15개국 31편 영화 선배... '디스커버리' 부문 9편 상영

'스페셜' 부문서 민족지영화 거장 티모시 에쉬 특별전

영한다.

'스펙트럼' 부문에서는 조선 시대 유람 연예인 집단인 남사당놀이패에 의해 전승돼 오고,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남사당놀이'를 살판(판재주), 풍물, 얼른(마술)으로 나누어 재조명하는 자리를 가진다.

살판은 세계적인 비보이 그룹 라스트포인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단의 협연으로, 풍물(농악)은 영화 '왕의 남자(2005·감독 이준익)' 상영과 전통창작 그룹 이팔림의 공연을 통해, 또 지금은 사라져 전승의 맥이 끊긴 전통 마술 '얼른'은 영화 '조선마술사(2015·감독 김대승)' 상영과 대한민국 대표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공연을 통해 새롭게 해석 및 표현된다.

이 외에도 국립무형유산원이 수집한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였던 故 강선영의 삶과 예술세계를 영화로 제작한 '조흔(2017·참여작가 김영조)' 상영을

비롯해 몽골·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의 무형유산 기록영상 3편을 선보이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특별전 '살아있는 유산-삶의 지혜'와 1965년 경기도 안성 청통사에서 촬영된 남사당놀이 16mm 아날로그 기록영화 아카이빙 필름을 고화질로 영상으로 복원한 작품도 공개한다.

무형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개최한 '제1회 무형유산 순수제작물(UCC) 영상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및 시상식은 31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김건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집행위원장은 "올해 축제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디스커버리 섹션을 국제경쟁으로 변화시킨 것"이라며 "향후 이 섹션이 인류무형유산 관련 영화제작을 격려하며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축제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개막작 '여름이 가기 전에'



디스커버리(국제경쟁)작 '노플라멩코 이야기'



지역영화 기획개발 제작지원 전주영상위원회, 공모사업 선정

(사)전주영상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역영화인력 육성 및 지역영상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실시한 '2017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5600만원(장편영화제작 5000만원·다큐멘터리제작 600만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은 새 정권의 지역문화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한국 영화산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돼 지역 영화생태계 조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영화인들에게 창작의 기획 제공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사)전주영상위원회는 영화제작지원비 확보로 '전라북도 영화제작융합사업' 장편영화 제작지원 및 전주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각 전주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국비 확보는 전주 및 전북지역 지역영화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씨드머니가 될 것"이라며, 전주영상위원회는 지속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우수한 지역 영상콘텐츠 발굴과 인력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 어린이 꽃심 지킴이 2기 참여자 모집

전주역사박물관(관장 이동희)은 31일까지 '한국의 꽃심, 전주 어린이 꽃심 지킴이'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꽃심은 '새로운 문화와 세상을 열어가는 중심'이 전주라는 말로, 전주시는 이를 지난해 전주정신으로 선포했다. 지킴이들은 전주정신을 익히고 체험해 보며, 전주정신의 가치를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9~11월 둘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12까지 진행되는 교육은 '전주정신 특별전-꽃심의 도시, 전주' 관람을 시작으로, 전주정신 '꽃심-대동·풍류·울림·창신'에 대한 설명과 이와 관련된 꽃심 카드 만들기, 사발통문 만들기, 태조어진 그리기, 선비 옷 입고 예절배



전주역사박물관이 '전주 어린이 꽃심 지킴이'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선비옷입고 예절배우기.

우기, 판소리 배우기 등의 체험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마치고 전주역사박물관 '어린이 꽃심 지킴이' 2기로 임명된다.

접수는 31일까지 전주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초등학생 3~6학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2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1만 원이다. /정해은 기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포스터 확정

전통 기반 상업적 성공 가능성 표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위원장 허진규)는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공식 포스터를 확정해 발표했다.

포스터는 서예의 전통(순수)을 기반으로 하면서 동시에 상업적(응용) 성공 가능성을 표현하여 서예의 가치를 담아내고자 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측은 포스터 디자인은 "올해 주제가 '순수와 응용'으로 이를 나타내기 위해 서예의 예술적 가치를 다양한 회색 톤으로 표현했고, 서예의 예술적 가치에 다홍색 컬러를 적용하여 전통(순수)을 바탕으로 상업적(응용)으로 성공해 나아가는 서예의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보여주고자 했다"고 전했다.

포스터는 2가지 디자인으로 레이아웃과 컬러의 변화를 통해 순수와 응용을 구분했으며, 복잡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서예의 묵직함을 나타내고 있다.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오는 10월 21일



부터 11월 19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및 전북예술관에서 5개분 25개의 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한국의 '송크란' 를 꿈꾸다!

무주 반딧불축제와 함께하는

2017 무주 남대천 물 축제

2017. 8. 26(토)~27(일) / 9. 2(토)~9. 3(일) (4일간)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남대천

워터 빌리지 | 남대천 썸머 콘서트 | 물싸움 WATER로 전쟁 | 패밀리 체험존

물총, 우배, 비치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워터로삼이 전시 운영됩니다. 주최·주관·무주읍·무주읍발전협의회 | 문의/063)320-5702/324-3474